

### 터키,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앞으로의 정국 전망

김재우 차장/박사(국제무역 전공)  
KOTRA 터키 무역관

#### 주요 내용

- 7.15 쿠데타 시도 이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3개월 비상 사태를 선포, 본격적인 반대파 숙청작업 중
- 최근 터키의 러시아와의 화해무드에 대해 EU와 미국은 터키에 적극적인 구매로 외교활동을 전개하는 모습
- 한편, 정치 불안정성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 및 금융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KIEP **대한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mailto: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이슈 현황

☒ **지난 7월 15일 발생한 터키 군부의 쿠데타가 즉각적인 현 정권의 대응으로 실패하면서 터키는 7월 20일부로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 시행 중**

- 현 정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대파 숙청작업에 돌입, 상당수가 체포 또는 구금되어 추가 정정불안은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전망됨.
  - 터키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 시도 배후를 미국에 거주 중인 페툴라 귤렌 이슬람 학자를 지목함.
  - 그의 동조세력으로 추정되는 수만 명의 공공부문(관료, 군, 교원 등) 관계자들이 숙청됨.
  - 페툴라 귤렌은 히즈메트(봉사)라는 사회운동을 이끈 학자로 2002년 에르도안 대통령과 함께 현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하였으나 정적관계로 바뀌면서 이번 쿠데타 배후로 지목됨.
  - 한편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 보도에 의하면 “8월 4일부로 이스탄불 법원은 귤렌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음”을 보도하여, 향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조짐
- 숙청과정에서 보여온 터키의 사형제 부활 등 강경노선적 발언에 대해 유럽은 터키에 대해 경고를 해왔으나, 터키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했다는 제스처로 상당히 완화된 분위기임.
  - 야글란드 유럽평의회(CoE) 의장은 “터키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유럽의 이해가 부족했으며, 터키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탬 것”이라고 밝힘.
  - 야글란드 의장의 터키 앙카라 방문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면담 및 이와 같은 발언은 이슬람 국가(IS)와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터키가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임을 인정한 것으로 관측
- 터키의 대 미화 환율은 쿠데타 직후 7% 이상 급등했던 상황에서 8월 5일 기준 3% 하락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어, 우려했던 터키경제의 급속한 하락 가능성은 낮아 보임.
  - 시기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었던 외부요인도 터키의 환율 안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쿠데타 진압이 단기간에 끝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부분도 안정세를 다소 회복한 요인으로 들 수 있음.
  - 다만, 대규모로 숙청된 쿠데타 배후세력이 기존 정치인, 교사, 군인, 언론인 등에서 최근에 귤렌에 동조한 협회 및 관련 기업인으로 예고가 되면서 일부 비즈니스에 타격이 될 전망도 배제할 수 없음.
  - 8월 5일부로 터키 관보를 통해 터키 정부는 귤렌 테러단체로 지목된 2,341개를 폐쇄조치 단행

## 2 분석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후 반대세력을 대규모로 숙청하는데는 미국과 EU, 러시아 등 터키를 이슬람국가(IS) 세력 제거에 가장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임.

- 7월 20일 자 美 뉴욕타임스(NYT)는 터키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터키를 “극단주의 세력 퇴치에 꼭 필요하며, 터키의 가치를 보여준 단면”이라고 논평
  - 현재도 터키가 시리아 인접의 터키 군사공항을 개방하면서 서방 연합세력의 이슬람국가(IS) 공습에 상당한 지원이 되는 형국임.
-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8월 9일, 작년 11월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이후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폭넓은 협의를 통해 향후 시리아 내에서의 IS 퇴치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이라고도 밝힘
  - 이는 터키가 러시아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보급로 역할을 하는 핵심 허브로써 중동,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의 이동통로가 되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임.

☒ 쿠데타 시도로 인한 경제손실은 미화 약 1,000억 달러(약 110조 원)로 추정<sup>1)</sup>하나, 이러한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터키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 회복세를 강조함.

- 터키 관세무역부 튀펜크지 장관은 터키의 쿠데타 시도가 금요일 밤(7월 15일)에 발발하였으며, 월요일에 증시가 정상적으로 개장될 정도로 빠른 조치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였다고 논평
  - 터키 중앙은행은 8월 9일 부로 홈페이지를 통해 터키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50bp 인하를 단행한다고 발표,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통해 터키의 경제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 터키 정부 또한 당분간의 터키 수출입 전망치 수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일부 제조업 지표의 뚜렷한 하락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
  - 건설, 기계 등 일부 제조산업 분야는 대체로 작년 동기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자동차 분야는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제반 산업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관측됨.

1) 2016.8.2. 터키 영자신문 Daily News는 터키 관세무역부 장관의 발표를 인용, 쿠데타 시도에 따른 물리적인 피해액만 합쳐도 최소한 1,0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보류, 관광객들의 방문 취소, 국가이미지 타격 등을 합치면 훨씬 더 큰 피해였다고 전망함

- 그러나 가장 타격을 입은 산업은 관광분야로서, 터키로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은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함.
  - 6월의 잦은 테러와 7월의 쿠데타 시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당분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3월 EU와 터키가 체결한 난민송환협정의 대가로 지급받을 재정적 지원 및 터키국민의 EU 국 여행비자 면제에 대해서는 향후 재논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당시 터키는 유럽 입성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EU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백지화할 가능성도 존재
  - 현재로서도 시리아 난민 약 2백여만 명을 수용 중인 터키가 유럽으로 유입될 난민을 걸러내지 않을 경우, 그리스 등 인근 EU 국가는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7월 1일부 시행예정이었던 터키 국민의 EU 국가여행 비자 면제 건은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논의대상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날 것으로 보임.

### 3 전망과 시사점

**▶ 터키 정부가 최우선 척결과제로 손꼽은 귤렌의 체포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향후 정국변화의 중심이 될 전망**

- 현재 미국은 터키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귤렌이 쿠데타의 배후라는 증거 없이는 추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대표단 교환은 수용하는 분위기
  - 미국은 8월 하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터키를 방문하여 이에 관한 문제를 직접 에르도안 대통령과 논의할 계획이며 터키가 갖고있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
- \* 터키는 이번 쿠데타에 대해 귤렌이 망명중인 미국과 유럽 일부국가들이 방조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음
- 한편, 터키의 이스탄불 법원은 8.2일부로 귤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임.
  - 이미 실시된 귤렌의 지지 단체들에 대한 폐쇄 이후, 귤렌의 신병 문제가 비즈니스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경우 터키의 정치 불안정은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

**▶ 대외환율이 취약한 편인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급격한 평가절하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 되찾는 과정은 그나마 시장 충격을 방지하는 디딤돌로 분석됨.

- 미국의 금리인상 유보와 영국 영란은행의 유동성 팽창을 위한 부양책이 적시에 터키 리라화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 효과
  - 터키 주요매체들은 “터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리라화로 환전한 규모가 100억 달러(약 11조 원) 이상”이라고 밝히며 터키 국민들의 애국심이 터키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
  - 터키 관세무역부 장관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의 징후는 없다”며 터키 경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많이 보이기도 함.
- 최근 터키는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외 자본유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인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고정적인 세금감면 혜택,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보조 등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혜택보다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터키의 향후 전망은 우선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할 것으로 기대되며, 터키를 둘러싼 외교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귀추가 주목됨.**

-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급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이슬람국가(IS)사태 및 시리아 문제 해결에 대해 두 나라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갈 것으로 합의하였음. 이에따라 무역 및 관광 협력은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
  - 이에 비해 EU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할 것으로 보임. 독일 경제부 장관도 “터키의 EU가입은 향후 10년 또는 20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친 바 있음. **EMERiCs**

#### 출처

터키관보, 터키 아나톨루 통신, 터키 데일리 뉴스, 美 뉴욕 타임즈 등